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확정

한중태 국회 대변인 지난 20일 발표 ... 내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 안되면 안심 못해

제17대 국회 말기인 2008년 4월 확정됐다가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건립이 보류됐던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이 18대 국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20일 다시 확정됐다.

한중태 국회 대변인은 지난 20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대 38만㎡에 의정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건립비는 약 490억원이다. 국회는 우선 내년 예산에 설계비 10억원 가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의장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송훈석 국회의원, 황종국 고성군수,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 등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연수원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연

수원 건립 보류에 반발하는 쉼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3년간 의정연수원 건립을 촉구해온 고성 주민들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 등 많은 중앙 언론들이 연일 사실과 논평 등을 통해 국회의 이번 결정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기와 서민경제 위축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론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4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또다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송훈석 국회의원은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부지가 마침내 오늘(20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로



세조 임금 행차요~

고성군민들의 최대 축제인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열린 가장행렬에서 조선시대 세조가 건봉사에 행차해 5일 동안 머문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관런기사 8면**

확정됐다”며 “뒤늦게라도 국회가 건립부지를 최종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공현진2리 해변이 심하게 침식되고 있다. 원내는 지난 22일 인근 주민들이 해변으로 나와 파도에 쓸려나가는 모래사장 안타깝게 지켜보는 모습.

공현진2리 해변 해안침식 심각

지난 21일 1m 두께 모래톱 사라져 ... 주민들 대책마련 촉구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2리 해변에 해안침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로와 인접한 모래사장까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자 마을 주민들이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현진2리 해변이 파도에 휩쓸려 두께 1m 가량의 모래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이곳에서 가진 방향으로 100여m의 해변이 깊게 파여 나가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 여름부터는 공현진2리 해변을 개장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도로까지 침식돼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근에서 ‘옵바위’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손병남씨는 “2년전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해안침식 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을 넣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두 가지다. 우선 사라지고 있는 해변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빈(모래를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공법) 작업을 해달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장기 대책으로 모래유실을 막아주는 잠제(높이가 낮은 방파제, 파도의 침식성을 완화시킨다)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23일 “잠제 설치 등의 사업을 하려면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돼야 하는데 공현진2리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며 “2014년 수정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전까지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양빈 등을 통해 해변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잠제 설치 등 수습에서 수백억원이 드는 사업을 군에서 하기는 어렵다”며 “강원도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일단 군비를 들여 파제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